

“가을꽃 향연 임실 여행 즐겨요” 남원시, 함파우 지방정원 추진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 임실치즈테마파크, 특별한 가을 여행지 각광

가을이 한창 무르익은 10월,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가 국화와 구절초로 화려하게 단장하여 가을 정취의 절정을 맞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임실N치즈축제 이후에도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1만2,000여개의 국화 화분이 배치되어 다채로운 색깔로 가을 풍경을 물들이고 있다.

알록달록한 국화꽃이 산책로와 포토존 곳곳을 장식해 출렁다리를 지나며 붕어섬의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꽃길은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8,000㎡ 규모의 구절초 군락지는 붕어섬 곳곳에서 은은한 하얀 물결을 이루며 옥정호 수변 경관과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한다.

구절초는 가을의 고즈넉한 정취를 그대로 담아내며,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대표적인 가을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군은 구절초와 국화의 조화를 한층 돋보이게 하기 위해 코데우스, 핑크플리, 메리골드, 아스타 등 14종의 가을꽃을 식재하여 붕어섬 전역의 색깔과 계절감을 더욱 풍성하게 꾸몄다.

이와 함께 약 1만㎡ 규모의 코스모



가을이 한창 무르익은 10월,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가 국화와 구절초로 화려하게 단장하여 가을 정취의 절정을 맞고 있다.

스 군락지와 수변의 역사가 어우러져 가을 정원으로서의 매력을 완성하고 있다.

한편,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임실N치즈축제 이후에도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11월 중순까지 국화 전시를 이어가며, 가을철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즈테마파크 전망대가 있는 바람의 언덕과 서바이벌장 뒤편에는 소나무가 어우러진 구절초 동산이 조

성돼 풍성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힐링 경관을 선사한다.

특히, 바람의 언덕 일대에서는 형형색색의 국화꽃 사이로 새하얀 구절초가 어우러져,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와 함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심 민 군수는 “붕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지만, 특히 가을에는 국화와 구절초가 어우러져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다”며 “국화 향기와 구절초 물결 속에서 마음까지 여유로워지는 특별한 가을 여행을 임실에서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주제 정원 · 산책로 ·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 조성 나서

남원시는 노암동 산13번지 함파우 일원에 지방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제 정원과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식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목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하반기에는 겹벚나무, 에메랄드그린, 홍매화 등 다양한 수목 식재와 함께 특히 야간에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이용객들에게 낮과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올해 사업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부

터는 함파우 지방 정원 본역 개방과 함께 2025년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생활 밀착형숲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함파우 지방 정원은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통해 향후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함파우 지방정원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강천산군립공원의 가을 단풍철을 맞아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가을 성수기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가을 성수기 운영

단풍철 맞아 11월 23일까지

순창군은 지역 대표 관광명소인 강천산군립공원의 가을 단풍철을 맞아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가을 성수기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운영은 단풍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공원 일대 주차, 매표, 환경관리, 질서유지 등 5개 분야에 총 36명의 운영인력을 배치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올해 강천산 단풍은 11월 10일부터 15일 사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순창군은 등산로 정비, 교통 안내, 편의시설 점검, 안전 관리 등 방문객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공원 내 주요 등산로 6개 구간은 사전 정비를 마쳤으며, 공원 입구에서 대형버스 주차장까지 편도 650m 구간에서는 무케도 열차 운행도 준비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70여 명의 중소사업체 대표와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위험성평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실시됐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 지역본부 경영교육부 권원호 차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이해 및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참석자들은 법적 의무사항과 현장 적용 방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교육 현장을 방문해 “중소사업체는 안전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 문화 정착과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오수면 지사협 임실문화탐방 행사 진행

오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장윤미, 민간위원장 박세근)가 최근 나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과 임실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협의체 회의에서 사업이 결정된 이후 복지이장과 협의체 위원들이 스스로 나들이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임실을 거주하면서도 임실 관광명소인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를 구경해보지 못한 어르신들 위주로 발굴하여 임실명소 나들이 기회

의 제공과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 30여 명과 자원봉사로 참여한 협의체 위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으며,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을 둘러보며 가을 정취와 지역 관광명소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협의체 기금으로 진행했으며, 협의체 기금은 오수면 협의체 위원, 착한가게 등 지역 주민들의 정기적 후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자전거도로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남원시가 2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해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가을철 자전거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자전거도로 시설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의 노면상태와 교통시설

의 파손 등을 점검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사고예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번 하반기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은 간선도로 11개 노선과 생활권도로 29개 노선으로 총 41개 노선, 약 77km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면 균열 및 파손 여부 △배수시설 · 포트를 점검 △

교통안전 표지 · 난간, △토사 · 적치물 점검 △자전거 보관대 파손 점검 및 무단방치 자전거 조치 등이다.

남원시는 시내권 자전거도로 전 구간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며, 현장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가공사 계약 업체를 통하여 신속 조치하거나 추후 예산 확보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수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25일 성수산 왕의숲 산림치유 숲속 음악회 개최

임실군이 오는 25일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일원에서 ‘성수산 왕의숲 산림치유 숲속 음악회’를 개최한다.

성수산 왕의숲 산림치유 숲속 음악회는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성수산 왕의숲을 방문하는 관광

객이 숲의 치유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함께 어울리는 화합과 상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치유 음식 체험 △사운드 워킹 △산림치유 숲 활동 △호흡 명상 △아로마테라피 등 오감을 자극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숲 탐험대’, 자연의 감성을

담는 사진 전시회,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진행된다.

또한, 질라인 무료 이용과 황토길 맨발 걷기 체험 등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하여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임실=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